

# 함평군-중국 청두시 피두구, 교류·협력 강화

### 현지 축제 참가...친환경 농산물·축제·관광상품 등 홍보 경제·문화·예술 등 동반성장 논의...“국제교류 지속 확대”

함평군이 중국 청두시 피두구를 찾아 함평의 우수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축제 등을 홍보하며 교류·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청두시 피두구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나비촌 유채꽃축제’에 참가, 함평 축제·관광상품과 농특산물 브랜드인 K-HC푸드 홍보관을 운영했다. 함평과 피두구의 교류는 지난해 3월 체결한 우호 협약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피두구 관계자들이 함평을 방문하면서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28일 양 기관이 체결한 협력의향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역 축제 교류를 비롯해 특산물 및 경제 분야 협력, 문화·예술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대표 관광 콘텐츠와 지역 농특산물을 중국 현지에서 소개하고, 축제를 활용한 관광 교류 확대에

나섰다. 특히 오는 4월 24일 개막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에 피두구 대표단이 방문하는 방안을 비롯해 농특산물 판로 개척, 농업기술 교류 등 문화·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논의했다. 현지 홍보관에서는 함평군 관광 캐릭터 ‘황박이’와 ‘뽕비’를 활용해 대표 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를 알리고, 김·사골·미숫가루 등 20여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전시·홍보했다. 현지 관계자와 방문객들은 함평군의 관광지원과 축제 콘텐츠, 농특산물에 큰 관심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함평의 관광과 축제, 농특산물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중국에 알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함평군은 지난 7일부터 중국 청두시 피두구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나비촌 유채꽃축제’에서 지역축제·관광상품과 농특산물 브랜드인 K-HC푸드 홍보관을 운영했다. 사진제공=함평군

## 여수,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고도화

### 모도 친환경 수소 거점 개발 등 59개 과제 논의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이행률 제고를 위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에서 정현구 부시장 주재로 담당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실행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총 59개의 실행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과 보완 사항을 공유하며 실행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까지 해양치유 어성대회, 일레븐브리지 마라톤 대회, 여수 해양마라톤 대회,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 장수만 백리섬 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 등 8개 사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가막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정수만 국가지질공원 지정, 여수 해안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대응 발전전략 수립, 광양만 석유화학산업단 신산업 전환, 모도 친환경 수소 거점 개발 등 주요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UAM·위그선 등 미래 신산업 분야는 사전 준비 단계로 기반 조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본격 추진 시 여수만 르네상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은 여수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핵심 프로젝트”며 “모든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서 역량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은 여수의 5개만을 특색에 맞게 균형 보완·개발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글로벌 미래해양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수의 미래 발전 로드맵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 나주, 공공청사 텀블러 세척기 확대

### 1회용컵 사용 줄이기...공직자·시민 누구나 이용

나주시가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텀블러 세척기를 확대 설치하며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공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를 확대 보급했다. 시는 지난 2024년부터 시청과 나주 시농업기술센터, 나주보건소 등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월평균 약 2360회 이용되는 등 청사 내 1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 개인 텀블러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텀블러 세척기는 다회용기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기반 시설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청사를 찾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회용기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 공공청사 5곳에 텀블러 세척기를 추가 설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추가 설치 장소는 시청 민원실 2대, 빛가람시립도서관 3층 북카페 1대, 나주시립도서관 2층 1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1층 1대, 12일 개관을 앞둔 빛가람북학문화체육센터 1층 카페 1대 등 총 5개소다. 각 시설 운영 시간 동안 공직자뿐 아니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텀블러 세척기 설치를 통

## 고흥 거금도 햇양파, 먹거리 시장 공략

### 프리미엄 마켓 ‘오아시스’ 전국 매장 첫 출하

고흥군은 최근 거금도농협에서 ‘거금도 햇양파 프리미엄 마켓 오아시스 전국 매장 첫 출하 상차식’을 개최하고 고흥산 햇양파의 본격적인 전국 유통에 들어갔다. 상차식은 거금도에서 생산된 햇양파를 친환경 프리미엄 식품 유통기업 오아시스(OASIS) 전국 매장으로 처음 출하하는 자리로, 군과 거금도농협, 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흥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기원했다. 거금도 햇양파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돼 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뛰어나며 저장성이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고흥 대표 농산물이다. 고흥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과 ㈜오아시스의 협업을 통해 거금도 햇양파가 프리미엄 유통망을 통해 전국 매장에 공급되면서 지역 농산물의 판로 다변화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형 유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고흥몰 관계자는 “거금도 햇양파가 프



고흥군은 최근 거금도농협에서 ‘거금도 햇양파 프리미엄 마켓 오아시스 전국 매장 첫 출하 상차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고흥군

리미엄 유통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 협력을 통해 고흥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온라인 공공 쇼핑몰 고흥몰 운영과 함께 민간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 농수특산물의 판로 다변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 영암,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고용주 소통

### 근로조건·인권침해 예방 교육

영암군은 최근 한국트루트가요센터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개정 사항, 고용주 준수사항, 근로조건, 인권침해 예방 등 실무 위주 정보가 전파됐다. 나아가 계절근로자 가족과 고용 농업인 등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용 환경을 함께 조

성해 달라고 영암군은 당부했다. 박미아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소중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최대 8개월간 외국인주민 가족 등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영암군은 293농가에 91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완도, 군민 아이디어로 ‘열린 행정’ 실현

### 정책제안 방식 개선 등 내실화

완도군은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총 543건의 군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 채택률은 16%로 전국 평균(10.7%)을 상회했다. 군은 올해도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단순 민원이나 반복 제안, 최근 들어오는 인공지능(AI) 활용 양산형 제안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안제도의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창안자와 제안 실시 부서에 대한 보상 강화, 군민·전 직원 대상 ‘제안 바로 알기 교육’ 실시, 중복 접수 방지를 위한 최근 3개월 제안 목록 배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 강화 차원으로 우수 제안자를 선발해 표창을 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지표에 ‘제안 실시’ 가점을 추가해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창의적인 목소리는 군정의 동력이다”며 “군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rk1831@gwangnam.co.kr

## 담양, 대표 관광 ‘캐릭터 브랜드’ 개발 주력

### 기념상품·콘텐츠 등 제작

담양군은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관광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광상품과 콘텐츠 확장에 나선다. 군은 그동안 ‘대돌이·딸리(2000년대)’, ‘담이·양이(2014)’, ‘판담(2017)’ 등 시대별 캐릭터를 운영해 왔지만, 급변하는 세계화 흐름과 현대적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군은 단순히 캐릭터 제작에 그치지 않고 담양의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다양한 기념상품과 콘텐츠로 확장할 방침이다. 개발의 핵심은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야기’이다. 군은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 등 대표 관광자원과 자연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남녀노소 누구나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는 개성과 이야기를 지닌 캐릭터를 선보일 방침이다. 또 개발 단계부터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상품과 콘텐츠를 제작해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해 최종 캐릭터 기본형을 확정한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의 대표 관광자원을 담은 캐릭터를 통해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굿즈와 콘텐츠로 확장해 지역 불어넣는 ‘이야기’이다. 군은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 등 대표 관광자원과 자연을